

정리노트

고유어 출제 경향

- 사전적 의미는 어휘의 가장 기본적인이며 객관적인 의미
- 여기에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해 형성되는 함축적 의미, 문장 속에서 지니는 문맥적 의미 등으로 확장되어 나감
- KBS한국어능력시험에서 고유어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항은 해당 어휘를 문장 속에서 제시한 후, 그 뜻을 물을 문는 형태로 출제 됨
- 해당 대상 어휘는 일반 어휘와 주제별 어휘로 구분할 수 있음
- 짧은 문장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해당 고유어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형태로 출제됨
- 형용사의 의미를 물었던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았으며, '곰살궂다, 마뜩하다, 수더분하다, 추레하다' 등이 함께 출제됨

정리노트

한자어 출제 경향

- B.C. 2~3세기 경 우리나라에 전래된 한자는 우리의 문자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쳐 옴
- KBS한국어능력시험에서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항은 해당 어휘를 문장 속에서 제시한 후, 그 뜻을 물을 문는 형태와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그 쓰임을 묻는 형태의 두 방향으로 출제됨
- KBS한국어능력시험에서 어휘 영역 가운데 출제율이 가장 높은 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 또한 다양함
- 짧은 문장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해당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형태로 출제됨
- 평균 정답률은 고유어보다 10% 이상 낮게 나타났다. 제33회의 정답률 (瀕死/빈사) 이 가장 낮았는데 ‘쟁탈(爭奪), 척결(剔決), 진척(進陟), 경계(警戒)’ 등의 한자어 선택지를 구성한 문제였음